

<2014년 1월14일 화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할렐루야!

“믿었어도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먹으려고 보약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다, 그러면 그 약은 시간이 가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약이 된다 이런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말씀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성공하는 줄 압니까? 모두 각종각색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행하는 자가 성공한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보다 행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생을 성공하고 온 것입니다. 거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할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여기에는 내가 겪은 것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깨우쳐 준 것도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코치한 것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듣기 바랍니다.

요즘에 말씀이 또한 선포된 것이 있지요? “적지 말고 들어라. 머릿속에다 외워라. 머리에다 기록하라. 왜 컴퓨터만 치고 계속 적기만 하느냐. 실천해야지. 왜 적기만 하고 기록만 하고 왜 실천도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얕밟다.” 적고서 실천해야 하는데 적고서 실천하지도 않고 옆의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지장을 줘가면서까지 막 타자로 치면서 해놓고 본인도 다시 가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행치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너희 말씀은 신령한 말씀일수록 뇌에다 저장하라. 신령한 말씀일수록 마음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쓰기보다 머릿속에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머릿속에 외워버리면 머리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어떤 돌에다 쓰지 말고 어떤 종이에다 쓰지 말고 마음의 비에 새겨라. 심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두 말씀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그러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금주에 교육하라.” 해서 말씀을 시작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적지 말라. 그리고 머리로 외우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가는귀가 먹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의 사람이 써서 나에게 보여 주거든요. 옆의 사람이 한국말로

속기를 잘 써주면 그것을 보고 제가 깨닫는데 요즘은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편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곧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기록해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외워진다고 큰일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밥을 굶게 생겼다고 말씀을 굶게 생겼다고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나이는 먹어서 빨리 안 외워지고. 적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 못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못 했습니다. “왜 쓰고 실천을 안 하느냐. 무조건. 왜 쓰고 실천을 안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의 아량으로, 귀가 안 들려서 옆에서 적어줘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편은 “공적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습니다. “공적인 기록자는 기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타자치는 사람들, 제발 소리를 너무 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소리 안 나는 타자기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다다닥거리고 안 해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들은 타자기가 아예부터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옆사람에게 꽤 끼치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아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타자기는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옆의 사람이 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참 심령이 상합니다. 조금 조용하게 해도 그것이 쳐집니다. 누구는 타자 안 쳐봤습니까. 그런데 힘이 있게 막 다다다닥 한창 신나게 치면 옆사람이 사람이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경질이 나니까 말씀이 딱 안 받아들여집니다. 요새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익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줘도 신경쓰는 일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됐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써라. 조용히 쓰도록 하라.” 그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전체가 지금부터 옆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붓을 들고 쓰도록 하라. 그리고 공적인 사람들, 써서 역사에 꼭 남길 사람들은 하도록 하라.”

나는 요즘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이 끝나고 바로 가서 잠언을 쓰고 시를 쓰고 한 시간 이상 두 시간씩 합니다. 급한 것만 하는데, 상당히 정리가 잘 됩니다. 나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원래 쓰는 것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해서 “쓰도록 하라. 왜 가만히 있느냐. 네 머리가 그렇게 좋으냐. 쓰도록 하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서 쓰는 데만 정신이 빠지고 선생님과 말씀과 같이 일

굴이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속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얼굴 맞대고 서로 보면서 “아멘, 아멘.”하며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내가 잘 알지요? 왜. 내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타자도 칠 때 꼭 필요한 사람은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치십시오. 자기는 외우지를 못한다, 도대체 못 외운다 그런 사람은 조용하게 쓰십시오. 그 대신 책임져야 됩니다. 쓰는 데 빠지지 말고 듣는 데 빠져서 은혜를 받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엄청난 하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심스러워서 내가 ‘왜 그럴까?’ 연구해보니까 듣는 데 안 빠지고 쓰는 데 빠져 버렸습니다. 특별한 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쓰면서 은혜를 콕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통 쓰면서 말씀에 빠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그 귀하게 받아서 어떻게 넣어주느냐 못 넣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작품 전시회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빛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작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만 그렇게 해주고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만 기록하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이 쪽 가면 가슴이 뜨겁고 불이 갑니다. 불 자체가 하나님 신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신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런 것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천천히 하면 은혜는 되고 인식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가슴에 확 퍼붓는 확 뒤집어지는 것을 못합니다. 원래 내 특기가 빨리 해서 가슴에 불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과 같이 하려니까 그것이 약합니다. 외국 사람들 때문에 천천히 말씀하게 되어서 잘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 붙는 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따로 모임을 할 때는 그저 말씀 가지고 불을 붙여 버립니다. 초반부터 불붙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문입니다.

그러면 그쯤 알고 광고 시간에 나머지를 또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상태가 좋은가,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가 보십니다. “몽땅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몽땅 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 개성대로, 사람의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스톱 하고 하나씩 하나씩.”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신있게 은혜

를 받고 큰 역사를 일으킬 자신이 있으면 써라. 그렇지 못하면 쓰지 말고 머리에다 기록하라.”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갑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었어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관념만 갖지 말라. 반드시 믿었으면 행하라. 이것이 될 것이다 믿었으면 바로 행하라. 늦게 행하면 화가 온다.” 왜? 행할 것을 안 행하면 화가 옵니다. 100% 화가 옵니다.

어떻게 움직이라고 교육받았는가 하면 예수님께 교육받았는데 “거기 네 자리에 5분 있다가 포탄이 떨어진다.” 얼마나 빨리 뛰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폭탄이 터지는데 최대 사거리까지 도망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파편이 100미터, 200미터 날아가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다. 후닥닥 뛩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너를 지금 총으로 겨누고 있다. 그런데도 가서 뭐하겠느냐. 그 순간에 뭐할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동작을 빨리 해야 돼. 팍 앞드리든지 뛰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적이 너에게 총을 겨누고 딱 엎어 놓고 있다. 하나, 둘, 셋 하면 쏘려고. 그때와 같이 움직여라.”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공대 교육도 아니고 너무 무서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몸을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몸을 날리려니까 뛰는 연습도 하고 기는 연습도 하고 평소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나는 타겠다.” 했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나는 일꾼으로 쓰겠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내가 타고 가겠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조금 빨리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총을 맞으면 죽는지 압니까? 총이 빨라서 죽는 것입니다. 만일 총알이 천천히 굵뽕이 같이 오면 맞아도 안 죽습니다. 재미있어서 한번 맞아볼 만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가끔 묘기 행진들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요새는 카드 가지고 탁 때려서 커피잔도 깨뜨립니다. 그러나 쇠덩어리가 가도 천천히 가면, 1시간에 3미터로 간다면 맞아도 안 깨집니다. 커피잔이 계속 밀리기만 합니다. 종이로 만든 카드도 탁 던지면 빠르니까 맞고서 와인잔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빨라서 깨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나와 같이 실험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시골에서 풀을 베러 갔었습니다. 한 짐 해오고 낫을 갈고 그리고 또 풀을 베러 가는데 한번은 풀을 한 짐 해놓고 와서 국수를 먹고 다시 가는데

뭔가 찢찢했습니다. ‘내가 뭔가 찢찢하다.’ 했는데 산에 가서 그때서야 생각났습니다. 낫을 안 갈고 온 것입니다. 아까도 너무 무더서 이번에는 낫을 꼭 갈아야 했는데 그냥 온 것입니다. 낫을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힘으로 버텨야지.’하고 낫질을 번개처럼 팡 팡팡 하니까 막 끊어졌습니다.

“무딘 낫도 번개같이 휘두를 때 간 낫 같이 들더라.” 생활 속에 받은 잠언입니다. “여러분도 무딘 머리카락도 무딘 사람들도 번개처럼 행하면 효과가 있고 초능력기가 있다.” 내가 그만큼 했던 것입니다. 새파란 칼도 갖다 천천히 밀어붙이면 밀려가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동작을 빨리 하라. 빠른 구름을 타신다.” 빨리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신다.”

기도해주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제단 말씀을 통해서 세계 각 나라에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뜨거움을 느꼈으니 이제 실천함이 필요하오니 꼭 실천케 해주십시오. 실천한 자는 기록한 사람보다, 머리에다 기록한 사람보다 더 엄청난 근본을 가져왔습니다. 왜 목적지도 안 가고 만족하느냐 그랬습니다. 목적지에 가서 만족해야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사과나무 심었으니까. 가꾸었습니다. 기쁘지요. 거름했습니다. 기쁘지요. 꽃이 피었습니다. 기쁘지요. 열매가 열었어요. 기쁘지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슬프지요. “열매를 따먹어야 되지 않겠냐? 왜 목적지까지 못 가고 모두 기뻐하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만사대사가 끝까지 가야지 왜 행실도 안 해보고 적는 데서 기쁘고 머리에 외운 데서 기쁘냐? 마음의 감동 받고 불 받은 데서 끝나느냐? 행실 해보고 기뻐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축복해주시고, 잘못된 자들, 이 엄청난 세계에서 말씀을 다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 약은 사람들, 교회도 오지 않고 구원을 대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섬리 나라에 와야만 된다 했습니다. 내 지체에 붙어야만, 내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열려야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남 가지라고 했습니다. 돌 포도나무요, 돌팔이들입니다. 내가 20년, 30년 동안 배운 것을 전한 것을 그들은 역시 감정을 갖고서 다른 데 가서 전하고 다른 교단에 줘서 거기에 가서 머슴 살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깨지고 깨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온 나라들에게 함께 하고 충만해서 실천의 기대에 능력과 권능에 은혜를 더욱 충만히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